

인천시,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

등록 2014.09.11 10:19:14 | 수정 2016.12.28 13:20:44

【인천=뉴시스】이종열 기자 = 인천시는 15일부터 군·구와 환경부,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공동으로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사업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.

이 사업은 냉장고, 세탁기, 에어컨, 텔레비전, 가스오븐렌지, 공기청정기, 복사기, 냉온정수기 등 크기가 1m 이상인 가전제품을 버릴 때 인터넷(www.edtd.co.kr)이나 콜센터(1599-0903), 카카오톡(ID: weec)으로 예약하면 수거·운반 전담반이 방문하는 방식이다.

폐가전제품은 재활용센터로 옮겨져 친환경 처리된다.

그 동안 가전제품을 버릴 때 배출스티커를 붙여 집 밖에 내놔야 했다. 배출된 폐가전제품은 돈이 되는 일부 부품만 재판매되고 나머지는 방치돼 냉매가스가 공기중으로 유출되는 등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.

시 관계자는 "대형 폐가전제품 수거체제를 유상, 문밖 수거 방식에서 무상, 방문수거로 개선했다"면서 "시민 편의를 높이고 자원을 재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"이라고 말했다.

asap8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